

성자가된 장곡리 밤나무

장곡리에서 공릉저수지로 들어가지 않고 직진하여 광탄방면으로 200여m 지나면 오른쪽에 용미리 시립묘지가 눈에 들어오고 도로 옆에 70여년된 커다란 밤나무 하나가 서 있다. 여느 밤나무와 다른 것이 가지마다 꺾임이 심해 풍파를 많이 격은 것 같은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서 있는 나무가 있다.

- 성자가된 장곡리 밤나무

성자가된 장곡리 밤나무

장곡리에 있는 밤나무
무슨 사연이 그리도
많이 걸려있기에
매디 매디마다
굽어지고 휘어져 아프다
허공에 떠도는 죽은자의 애환
가지마다 주렁주렁
쪽빛으로 물든 하늘을 무대삼아
밤낮없이 춤추는 장곡리 밤나무
죽은 자의 애환을 듣는 당신은
성자임에 틀림없다

성자가 된
장곡리 밤나무

2025.1.5

장곡리 도ろん 밤나무
글/사진 시인 고기석